

공룡이 징검다리 건너던 곳... 연도교로 더 가까워진다

〈2017년 완공 예정〉



3부 전남도 선정 '가고 싶은 섬'

① 여수 낭도



280m 높이의 상산과 낮은 구릉지로 구성된 여수 낭도는 공룡발자국, 봉화대 등 관광자원과 함께 당제 등 전통 문화가 보존돼 있는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다.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 낭도·사도 등 수천점 발견

당산제·봉화대 등 전통문화 보존...경관도 수려해

폐교는 국제캠프 운영...섬 가꾸기 사업 '본부' 활용

전남도가 최근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015년 사업대상지로 여수시 낭도, 고흥군 연흥도, 강진군 가우도, 완도군 소안도, 진도군 관매도, 신안군 반월·박지도 등 6개 시·군 6개 섬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는 향후 매년 2개씩 추가해 10년 동안 '가고 싶은 섬' 24개를 뽑아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섬 가꾸기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일보는 이들 6개 섬의 자연여건, 전통문화, 주요 관광자원, 사업 계획 등을 다룬다. <편집자주>

모양이 여우와 비슷하다해서 낭도(狼島)로 불리는 섬은 물(여수)에서 약 26.2km 거리에 있어 1시간20분에서 30분이면 다다를 수 있다.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2번, 화정면 백야항에서 3번 등 하루 5번 접근이 허락된다. 이 섬에는 모두 350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풍광과 당산제 등 보존되고 있는 전통문화, 주민 간 잘 형성된 유대관계 등이 '2015년 가고 싶은 섬'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거기에 2017년 준공 예정인 여수 화양~고흥 적금 연도교로 인해 향후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했다.

◇전통문화 '당제(堂祭)'와 주민공동체= 화정면 낭도리 여산마을 당산제는 음력 1월14일 자시(子時, 밤 11시30분~새벽 0시30분)에 공동으로 지내는 마을 제사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마을공동행사로 치르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낭도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비용을 거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모시는 신은 낭도를 처음 찾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제단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제물과 술을 올리고 12번 절을 하는 등 제사가 끝나면 갯벌로 내려와 '용왕님'께 음식을 바치며, 한 해의 안녕과 소원을 비는 우리나라 전통 제사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가 다양해지면

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 350명 가운데 어촌계 회원이 130명으로, 매년 해안가 청소, 반지락 공동수확, 공동 판매 등을, 60명으로 구성된 여성회는 마을 단위 공동작업, 체육회, 마을경로잔치 등을 주관해오고 있다. 남성(152명)보다 여성(198명)이 더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공룡발자국 등 다양한 자연 산재=면적 5.60km의 낭도의 해안선은 19.5km다. 섬의 동쪽에 280m 높이의 상산이 있으며, 대부분 낮은 구릉지로 돼 있으며, 곳곳에 소규모의 민과 곳이 연이어 있다. 만의 입구는 대부분 모래가 쌓인 사빈(沙濱) 해안, 남쪽 돌출부는 암석 해안인데,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생화산암류가 대부분이다. 2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연간 1000여 명이 찾고 있다. 가장 유명한 자원은 지난 2003년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공룡발자국이다. 화정면에 속하는 낭도, 사도, 추도, 목도, 적금도 등 5개의 섬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데, 공룡발자국 화석은 사도에 755점, 추도 1759점, 낭도 962점, 목포 50점, 적금도 20점 등 모두 3546점이 발견됐다. 화석 종류도 다양한데, 공룡 발자국 화석만이 아니라 규화목, 식물화석, 연체동물화석, 개형충, 무척추동물 등도 다량 존재하고 있다.

또 낭도 상산 봉화대, 등대, 조개더미, 허랑목 등도 볼거리다.

◇폐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진행 경험=낭도에는 이미 1.8km의 관광도로가 설치돼 있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나무가 곳곳에 식재돼 있는 등 일부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또 낭도, 사도, 추도 등 낭도 권역 3개 섬의 폐교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살아 있다'가 상설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주도로 재생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외부에서는 국제워크숍기구, 전남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여수 365섬 추진위원회 등이 낭도에서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낭도에는 교육청 소유의 초·중학교, 사도와 추도에는 각각 전남대와 개인 소유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폐교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본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낭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고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섬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이 진행될 적이 없었다"며 "주민이 하나가 돼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사업 신청과 함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눈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낭도의 장점으로 ▲공룡발자국, 사질·암석해안 자연환경 보유 ▲추도, 사도 등 아름다운 섬들과 연계 가능 ▲풍광, 식대, 전망대, 당제 등 관광자원 보유 ▲봉수대, 당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 보유 ▲폐교 활용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가능 ▲화양~적금간 연도교로 접근성 향상 기대 등을 꼽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여수 낭도의 해수욕장 전경.



3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낭도에는 오는 2017년 연도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는 여수항 등에서 하루 5차례 여객선이 다닌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딜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